

“전북체육 더욱 비상할 것”

도내 생활체육 지도자들 카메라 앞에 서다

코로나 극복 영상 제작·보급

도내 생활체육 지도자들이 카메라 앞에 섰다. 18일 전북체육회(회장 정강선)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체육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도민들을 위해 도내 시·군 체육회 지도자들이 생활체육 영상을 제작·보급에 나섰다. 이는 코로나19로 찾아가는 생활체육 서비스 사업이 잠정 중단된 상태에서 생활체육 지도자들이 조금이나마 도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영상은 생활체육 지도자들이 모든 운동 과정을 직접 계획·제작하고 있으며, 연령대(일반·어르신·유소년 등)에 맞는 이른바 맞춤형 운동 방법을 만들고 있다. 이에 지도자들은 매달 3편 이상 제작하고 도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각 시·군 체육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SNS 등을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영상 제작에 사용되는 각종 운동 물품 등은 국민체육진흥기금이 투입되며, 코로나19가 진정 국면에 들어 가도 율해 맡겨지는 영상 서비스를 지

속·지원할 계획이다. 전주시체육회 이슬이 생활체육지도자는 “영상 제작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과 카메라 앞에 서는 것에 대한 어색함이 있었지만 영상을 보며 운동을 하고 좋아하는 시민의 반응을 볼 때 힘이 나고 뿌듯하다”고 말했다. 유인탁 사무처장은 “운동 영상을 통해 도민들이 조금이나마 활력을 찾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영상 제작에 고생을 하고 있는 만큼 우수 동영상에 대한 포상이 있을 예정이다”고 밝혔다. /장은성기자

송하진 도지사-시군체육회장 소통 간담회 체육계 “환영”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체육 발전을 위한 소통 행보에 나선 것에 대해 체육인들이 환영을 표했다. 18일 전북도와 전북체육회에 따르면 송하진 지사는 민간체육회장 시대를 맞아 도내 시·군 체육회장과 소통하는 순회 간담회를 진행 중이다. 첫 간담회는 지난 17일 정강선 전북체육회장을 비롯해 박종은 전주시체육회장, 윤인식 군산시체육회장, 조장희 익산시체육회장, 이종준 완주군체육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익산에서 열렸다. 공식적인 상견례 겸 진행 된 이날

간담회에서는 서로의 인부를 묻고 전북체육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특히 송하진 지사는 전북 체육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비롯해 체육인들의 고충에 대해 충분히 공감했다. 도내 시·군체육회의 공통 해결사 안인 지도자 처우개선과 200만 전북도민의 화합과 축제의 장인 전북도민체육대회 운영 계획 등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이에 도내 체육인들은 전북 체육이 더욱 비상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김중희 전북중목단체실무자협의회장

은 “화합하고 협력한다면 전북 체육은 체육 강도를 넘어 체육 선진도로 우뚝 설 것”이라며 “앞으로도 체육인들을 비롯해 전북도와 시군체육회가 똘똘뭉쳐 도민들의 건강과 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송하진 지사는 18일과 25일 각각 김제(정읍시체육회장·김제시체육회장·고창군체육회장·부안군체육회장)와 남원(남원시체육회장·진안군체육회장·무주군체육회장·장수군체육회장·임실군체육회장·순창군체육회장)에서 간담회를 가질 계획이다. /장은성기자



전주대학교(총장 이호인)는 18일 2020학년도 1학기 외국인 유학생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 지역사회에서 후원해 온 장학금을 유학생 23명에게 전달했다.

전주대, 지역사회 후원 장학금 유학생 23명에 전달

플러스건설 등 1,600만원 규모

전주대학교(총장 이호인)는 18일 2020학년도 1학기 외국인 유학생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 지역사회에서 후원해 온 장학금을 유학생 23명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학생들에게 전달된 장학금은 (유)플러스건설, 서전주모터리클럽, 전주모터리클럽, KCL 무역 서편담 장학재단, ISF(국제학생회), 기독교 실

업인이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해 기탁한 1,600만원 규모다. 이날 유학생들은 후원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손편지를 발송하고 후원단체를 직접 소개해보는 시간도 가졌다. 영림양 학생(문화기술학과 박사/중국)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유학을 포기하고 싶었지만, 도움 주신 장학금으로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후원해주신 장학금을 잊지

않고 저 역시 봉사와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류인평 국제교류원장은 “어려운 경제 속에서도 장학금을 후원해주신 단체의 관심과 사랑을 기억하고,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글로벌 인재육성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대는 지난 2월 교육부가 주관하는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에 선정됐으며, 풍부한 인프라와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을 지속적으로 유치하고 있다. /장은성기자

“선배의 소소한 마음 후배들에 닿길”

전북대 음악교육 1회 졸업생 김제근 교사 장학금 기탁

“전북대 재학 시절 학교 장학금으로 무사히 졸업해 지금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전북대학교 사범대학 음악교육과 1회 졸업생인 김제근 교사(79학번)가 장학금으로 써달라며 1천만 원을 기탁했다. 현재 서울 소재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김 씨는 8월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다.

김 교사는 정년을 맞아 그간 마음의 빚을 조금이라도 덜고 싶다는 생각에 모교에 장학금을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전했다. 김 교사는 “모교에서 배운 사랑에 비하면 작은 것이지만, 대학 선배의 소소한 마음이 후배들에게 닿길 바란다”며 “우리 학생들이 지역과 국가 발전을 이끄는 훌륭한 재원으로

성장해 나간다면 선배로서 매우 뿌듯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전북대 발전지원재단 관계자는 “김 교사의 기탁 관련 연락을 받고 배경을 전해 들으면서 가슴 뭉클함과 함께 모교에 대한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며 “기부자의 뜻에 따라 학생들이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데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전주비전대, B2C소매영업전문가 채용설명회 성료



전주비전대학교(총장 홍순직)는 (주)삼성전자 B2C소매영업전문가 양성과정 운영 및 채용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

전주비전대학교 총장 홍순직)는 (주)삼성전자 B2C소매영업전문가 양성과정 운영 및 채용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채용설명회는 전주비전대학교와 (주)삼성전자의 산학협약체결에 따른 기업 주주식(맞춤형) 핵심인재개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대기업

채용을 향상하기 위함이다. 설명회는 (주)삼성전자 인사담당자 유병환 Pro 박형준 Pro 등 채용 관계자가 직접 주관, 모집분야와 관련된 전주비전대학교 신재생이너지과, 전자과, 컴퓨터정보과 등 전공학과 소속 학생 2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특히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생활 속 거

리두기를 지키며 참여한 인원 모두가 손 소독 및 마스크를 착용한 후 시작됐다. 학생들의 뜨거운 관심과 열기로 시작된 채용설명회는 ▲2020년 (주)삼성전자 취업과 관련한 산학협력 프로그램(소매영업 전문가 과정) 소개, ▲5G 중심 기술 이슈와 마케팅 트렌드 이해, ▲전자 소매 유통 이해 및 6주 교육 소개(집합교육 2주 + OJT 및 매장 실습 4주) 순으로 이어졌다. 이번 설명회에 참여한 학생들은 2주 집합교육과 4주간의 리테일 매장실습 등을 수료, 삼성채용시험인 'CSAT' 시험과 면접을 치른 후 2021년 2월 최종 채용될 수 있다. 정진영 대기업채용전략포럼디렉터는 “창년취업은 세계 경기침체로 인해 올해가 다 가더라도 나아지지 않고 더욱 험난한 상황일 수 있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 온택트 채용 트렌드를 철저히 전략화하고 삼성전자와 같은 대기업 맞춤형 채용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유치해 학생들이 대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대기업도 전주비전대학교의 맞춤형 인재육성을 영입하여 인재풀을 넓히게 가져가는 Win-Win 전략일 수 있다”고 밝혔다. /장은성기자

무주 빨강치마리조트

홈페이지: <http://www.milmo.co.kr> 전화: 063-322-7000